

대학생의 기록관 인식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a Method to Use Activation and Awareness on Archives of University Student

이정은(Lee, Jung-eun)** · 강주연(Gang, Juyeon)***

김은실(Kim, Eun-Sil)**** · 김용(Kim, Yong)*****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선행연구
2. 기록관에 대한 대학생 인식도
 - 1) 연구설계
 - 2) 설문결과 및 분석
 - 3)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 인식 특징
3. 기록관 이용 활성화 방안
 - 1) 고려사항
 - 2) 분야별 이용 활성화 방안
4. 결론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재난안전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6M3D7A1912 703).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제1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장(yk9118@jbn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 2017년 12월 27일 ■ 최초심사일 : 2017년 1월 3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월 17일

〈초록〉

기록관은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견학, 전시, 교육 등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록물과 기록관의 인식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다. 기록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록관의 이용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록관의 잠재 이용자 중 대학생을 한 범주로 설정하고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대학생 집단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집단은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 등의 연구에서 특정한 이용자로 연구대상이 되어 왔는데, 물리적으로도 대학 기록관과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향후 기록관의 적극적 이용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집단의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 특징을 도출하여 기록관의 이용 활성화 방안 개발에 따른 특징을 반영한 고려사항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전북지역 J 대학교 대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2003년도에 영국 MLA(Museums Libraries Archives Council)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일부로 MORI(Market &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2003)에 의해 진행된 설문조사 보고서와 조윤희(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을 참고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한 인식, 기록물 및 기록관 이용경험과 비이용 요인, 기록관 이용 요구사항, 기록관의 효율적인 홍보 방법 등 크게 4분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대학생 집단은 대부분 기록물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기록관의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록물은 역사적 가치에, 기록관은 정보적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또한, 향후 기록관의 이용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서비스를 통하여 적극적인 이용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알아보았고, 이용자교육 측면, 프로그램개발 측면, 이용자 세분화 측면에서 기록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록관 이용활성화 방안, 기록관 인식, 기록물 인식, 기록정보 서비스, 대학생, 이용자 세분화, 잠재 이용자

〈Abstract〉

The records and archives center provide a variety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an effort to get closer to the public.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with regard to the lack of awareness of records and archives. In order to activate the use of archiv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sers of archives. Given th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records and archives in university students who are potential users of archives as well as to suggest methods to activate the use of records and archiv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As such, this study surveyed 182 university students at J university. The questionnaire items referred to Market &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MORI) (2003) as a part of the projects conducted by the Museums Libraries Archives Council (MLA) and Cho's study (2008). The questionnaire items consisted of four major areas: awareness of records and archives, experience with records and archives or reasons of not using them, requirements for the use of archives by potential users, and efficient method of promoting archives. As a result of the survey, most of the university students are indifferent to records. However, they recognized that it is highly important to manage records that are related to historical values and archives that are relevant to information values. In addition, they showed a positive intention to use the archives in the future; thus, it is highly likely for them to be converted into active users through appropriate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activating the use of the archives to university students, and suggested methods to activate the archives in terms of user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user segmentation.

Keywords : method of utilization on archives, awareness of archives, awareness of record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university students, user segmentation, potential users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기록관의 존재 목적이 기록물의 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소수의 업무 관련 이용자, 학자, 연구자, 특정 이용자만이 기록관에 소장된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열람, 공공의 알 권리, 정보제공과 같은 개념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자 공공기록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이용의 증대가 예상되었다(이해영 외 2007). 또한, 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이 보존 중심의 이론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에 그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록관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연구영역에서도 기록정보서비스 분야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 역시 기록관의 이용 증대를 예상하게 한다(김진 외 2013). 실제 기록관에서도 다양한 이용자를 끌어들이려는 대응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관심을 끌만한 콘텐츠 개발이나 전시 및 출판물 발간, 기록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정확히 기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성능이 좋은 검색 도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은 여전히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거나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기록물과 기록관의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다(이혜원, 이해영 2015). 최근 들어 많은 양의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이용자층과 무관심 이용자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이용자층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부재하였다. 특히, 잠재 이용자 중 대학생 집단은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적 지식과 지적 탐구의 소양을 갖춘 집단으로서 기록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으로 진출 및 졸업 이후에도 각종 기록정보를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이용자가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의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기록관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대부분 잠재 이용자에 해당하는 대학생 집단을 적극적인 이용자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기록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록관의 잠재 이용자 중 대학생을 한 범주로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학생 집단은 대학 도서관과 대학기록관 연구 등에서 특정한 이용자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한 예로 Zhou(2008)는 미시간대학교에서 미국역사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 관련 지식과 검색 기술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와 이를 어떻게 연구 프로젝트 단계에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대학기록관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있는 대학생이 향후 기록관 이용의 적극적인 이용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들 대학생 집단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세분화에 따른 기록관 이용의 효율적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기록물 및 기록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설문분석을 통해 기록관 이용 활성화 방안, 특히 잠재 이용자를 위한 제언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까지 진행된 이용자 관련 연구와 기록관 이용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문헌 조사를 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잠재 이

용자에 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잠재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설문지 문항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설문지는 J 대학을 중심으로 배포하여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예비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배포, 수거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셋째, 이상의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기록관 이용 활성화 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에 있어서 선행연구는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인식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록관 이용자의 연구, 기록관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로 조윤희(2008)는 기록물의 학술적 이용에 초점을 맞춰 역사학, 법률학, 정치학, 행정학 등의 연구자 집단을 대상으로 기록관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에 따른 문제점,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43%가 기록관의 이용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술조사 및 연구 자료의 열람을 위하여 기록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록관의 비이용 요인으로는 기록관에 대한 정보 부재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외 연구로는 2003년도에 영국 MLA(Museums Libraries Archives Council)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일부로 MORI(Market &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2003)에 의해 진행된 설문조사의 보고서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15세 이상의 일반인 1,9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기록물 비이용자의 인식조사 및 비이용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33%가 기록물 비이용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16%의 응답자는 기록의 사용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답변하여 기록관의 비이용은 무관심에서 비롯됨을 나타내었다.

기록관의 인식으로는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 기록물에 대한 인식으로는 ‘오래된 문서, 사진, 지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효과적인 기록관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록관의 이용자에 관한 연구는 이용자 유형에 관한 연구와 이용자 행태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었다. 김은실(2008)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기록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사료관의 이용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크게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로 구분하였다. 내부이용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판하는 출판물 제작을 위한 사료 이용 및 교육부서, 사료관 직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외부 이용자는 사료 기증자(단체), 연구자, 언론 관계자,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기록관리학 관련 단체, 기타 개인, 학생, 교사 및 교수로 다시 상세히 구분한 바 있다. 이 중 학생 및 교사는 사료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용대상자는 아니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명과 사료관의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한 주요 잠재 이용자로 분류하였다. 정경희(2007)는 고등학교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록물의 이용행태를 연구하였다. 교사와 학생을 기록관의 주요 이용자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록물과 기록관에 대한 인식, 기록물 이용현황, 기록물 탐색 행태, 장애 요인, 수업에서 기록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견해들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잠재 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김하야나와 김기영(2014)의 연구는 도서관 이용자와 잠재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비이용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잠재 이용자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오선경과 이지연(2011)은 시각장애인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모로 조사·분석하여 상관성이 높은 공통된 요인을 추출하였다. 잠재 이용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이용자의 요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비이용 요인의 제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덕현과 강은영(2012)의 연구와 윤희운(2012)의 연구 역시 공공도서관의 이용경험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비이용

요인의 조사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의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관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음을 고려한다면 기록관 이용자의 연구에 있어서 잠재 이용자의 연구는 기록관과 기록물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잠재 이용자의 비이용 요인 분석 및 홍보 전략 등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김건 외 2013).

마지막으로 기록관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여러 기록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이해영(2012)은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서비스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하였다. 기록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으나 내부이용자들에게 SNS를 통한 서비스와 전시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요구되는 기록들은 증빙, 업무 참고자료 등이 많았고, 제공되는 검색 도구의 한계점과 기록물의 미정리,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원채원(2015)은 대학기록관의 이용자 교육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하였다. 연구결과 대학기록관은 특정 대상을 위한 이용자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고, 특히, 과제·학습·연구를 수행하는 학부 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구성원 등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이용자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까지의 연구 중에서 유사기관인 도서관을 포함하여 기록관의 잠재 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록관의 잠재 이용자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분야에 실증적인 데이터를 더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록관에 대한 대학생 인식도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용자 세분화를 바탕으로 대학생을 이용자의 한 범주로 구분하였다. 대학생의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기록관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먼저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기록관의 이용경험을 조사하였는데, 단 4명만이 기록관의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향후 진행될 설문 응답자 중에 잠재 이용자의 비율이 높고, 기록관의 인지도가 낮음을 예상하게 하였다. 따라서 설문의 주제가 되는 기록관의 형태가 국가기록원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기록관, 대학기록관, 주제기록관 등 매우 다양하고, 형태에 따라 기록관의 활동상황이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기록관의 이용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특정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록물의 인식을 조사하고, 기록관의 비이용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잠재 이용자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기록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분류가 다양하여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였는데 기록학계에서는 정의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선경과 이지연(2011), Madden(1979)의 도서관 비이용자 연구에서 사용된 정의를 수정하여 '기록관을 단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기록관 이용자 관련 연구 중 잠재 이용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거의 없으며 유사 기관인 도서관 분야에서 행해진 비이용자 관련 연구를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도서관 분야 역시 적은 숫자여서 참고할 만한 설문지가 없었다. 따라서 설문지 개발을 위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은 J 대학교의 대학생으로 기록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잠재 이용자 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결과 후 잠재적 이용자들의 기록관 인식 및 기록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보완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MORI(2003)와 조윤희(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한 인식(4개 문항), 기록물 및 기록관 이용경험 및 비이용 요인(3개 문항), 잠재 이용자의 기록관 이용 요구사항(8개 문항), 기록관의 효율적인 홍보방법(3개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3개 문항)으로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 후 J 대학교의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동안 J 대학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학 강의실, 연구실 및 도서관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총 220부를 직접전달방식으로 배포, 수거하였다. 이 중 19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86.8%를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182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공개 통계전용 프로그램인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및 기록관 이용 경험, 기록물·기록관의 인식도, 향후 기록관 이용의향,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전공계열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율검증을 시행하였다. 셋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전 요인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하였다.

2) 설문결과 및 분석

(1) 인구통계학적 분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으로는 성별, 학년, 전공계열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83명(45.6%), 여성이 99명(54.4%)의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 분포는 3학년이 62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이 58명(31.8%), 2학년이 26명(14.3%), 1학년이 20명(11.0%) 순이며, 석사와 박사 과정의 학생도 16명(8.8%)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전공계열은 자연과학계열의 응답 비율이 51명(2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사회계열이 40명(22%), 인문계열이 38명(20.9%), 예술계열이 29명(15.9%), 공학계열이 24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2)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이용경험 여부

기록물 및 기록관 인식조사에 앞서 기록관의 이용경험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149명(81.9%)이 이용경험이 없었으며, 33명(18.1%)만이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9명(15.9%)으로 총 62명(34%)이 기록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과반수가 넘는 120명(65.9%)은 ‘기록관에 대하여 처음 들어’(92명, 50.5%) 보거나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다’(28명, 15.4%)고 답변하였다.

<표 1> 기록관의 이용경험 여부

이용경험 유무	구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있다	온라인 기록관 방문	18	9.9	33	18.1
	기록관 직접 방문	15	8.2		
없다	처음 들어본다	92	50.5	149	81.9
	이용해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	29	15.9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다	28	15.4		
합계		182	100	182	

응답자의 학년에 따른 이용경험 여부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표 2>와 같

이 4학년의 이용경험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학년(19.3%), 1학년(10.0%), 2학년(3.8%)의 순서를 보임으로써 1, 2학년보다 3, 4학년의 기록관 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전공계열에 따른 기록관의 이용경험 비율은 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의 학생이 각 계열 학생대비 20%를 상회하는 이용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뒤로 인문계열, 공학계열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계열은 전체 응답자 대비 6.9%의 낮은 이용경험 비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용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다시 세분화하여 학년별, 전공계열별 기록관의 이용경험을 분석하였으나 모두 유의확률 값 0.05에서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였다. 다만, 전공계열별 응답 비율의 차가 15.6%(사회계열, 22.5%—예술계열, 6.9%)인 반면, 학년별 응답 비율의 차는 22%(4학년, 25.8%—2학년, 3.8%)를 나타내어 대학생의 기록관 이용경험은 전공계열에 따른 편차보다 학년별에 따른 편차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학년별/전공별 기록관 이용경험

구분		기록관 이용 경험					
		있다		없다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년	4학년	15	25.8	43	74.2	58	100
	3학년	12	19.3	50	80.7	62	100
	석·박사	3	18.7	13	81.3	16	100
	1학년	2	10.0	18	90	20	100
	2학년	1	3.8	25	96.2	26	100
유의도	X-squared = 6.8669, df = 4, p-value = 0.1431						
전공 계열	사회	9	22.5	31	77.5	40	100
	자연과학	11	21.6	40	78.4	51	100
	인문	7	18.4	31	81.6	38	100
	공학	4	16.7	20	83.3	24	100
	예술	2	6.9	27	93.1	29	100
유의도	X-squared = 3.4229 df = 4, p-value = 0.4897						

기록관의 이용경험이 없는 149명을 대상으로 기록물 및 기록관의 비이용

요인을 알아보았는데 결과는 <표 3>과 같다. 기록물의 비이용 요인에 대해서는 ‘기록물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61명(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엇을 기록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43명(28.9%), ‘기록물은 본인과 관계가 없음’으로 생각하는 응답은 33명(22.1%)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2명(8.1%)이었다.

기록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73명(49.0%), ‘기록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가 33명(22.1%), ‘기록관은 본인과 관계없다’가 22명(14.8%), ‘기록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21명(14.1%)으로 답하였다. 이는 도서관 및 박물관보다 기록관의 물리적 환경이 비이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기록물 및 기록관 모두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명(10.7%)으로 나타났다.

<표 3> 기록물 및 기록관의 비이용 요인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
기록물 비이용 요인	기록물 자체에 관심이 없다	61	40.9
	기록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43	28.9
	기록물은 나와 관련이 없다	33	22.1
	기록물을 볼 시간이 없다	12	8.1
	합계	149	100
기록관 비이용 요인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73	49.0
	기록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33	22.1
	기록관은 나와 관련이 없는 곳이다	22	14.8
	기록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21	14.1
	합계	149	100

(3) 기록물에 대한 인식도

기록물 관리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에 77명(42.3%), ‘중요하다’에 78명(42.9%)이 응답하여 전체 182명 중 대부분의 응답자인 155명(85.2%)이 기록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조사한 기록물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기록물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61명의 응답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기록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는 ‘역사적 보존가치’에 102명(56.1%)이 응답하였으며, ‘미래의 정보이용가치’에 대하여는 61명(33.5%)이 응답하였다. ‘법적 증거가치’에 대한 인식으로는 13명(7.1%), ‘잘 모르겠다’는 6명(3.3%)으로 5% 내외의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표 4〉 참조).

〈표 4〉 기록물의 가치 인식도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기록물의 가치	역사적 보존가치	102	56.1
	미래의 정보이용가치	61	33.5
	법적 증거가치	13	7.1
	잘 모르겠다	6	3.3
	합계	182	100

전공계열에 따른 기록물의 가치인식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로는 유의확률 0.05 에서 p-value 값이 0.5284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역사적 보존가치의 인식에는 전공별로 50%가 넘는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법적 증거가치 인식도에서는 자연과학계열(11.8%)과 인문계열(10.5%) 이 다른 전공계열보다 다소 높은 인식비율을 보였다. 미래의 정보이용가치 인식도 부분에서는 인문계열(23.7%)의 인식도가 다른 전공계열보다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생의 기록물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오래된 문

서, 사진, 지도, 일기, 뉴스 등'이라고 답변한 응답이 116명(63.7%)으로 전체 응답물의 50%를 상회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기관이나 조직의 업무활동으로 생산되는 문서'로 인식하는 응답에는 42명(23.1%)이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86.8%가 박물관의 수집품 개념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기록물을 수집품 혹은 박물관과는 달리 문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이나 조직의 업무활동으로 생산되는 문서'의 개념으로는 42명(23.1%)이 답변하여 기록물을 현용기록보다는 비현용 기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기록물 인식도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기록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래된 문서, 사진, 지도, 일기, 뉴스 등	116	63.7
	기관이나 조직의 업무활동으로 생산되는 문서	42	23.1
	기관이나 지역의 오래된 수집품	17	9.3
	기타	7	3.9
	합계	182	100

(4) 기록관 인식도

대학생의 기록관에 대한 인식도 결과는 〈표 6〉과 같다. 기록관에 대한 인식으로는 '연구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응답이 98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래된 사진이나 수집품이 있는 곳'이라는 답변이 58명(31.9%),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라는 응답이 21명(11.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가지는 기록관 인식 특징을 나타내는 결과로 기록관에서 본인의 지적 탐구를 위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록관의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가지는 기록관 유사 이미지에 대한 설문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박물관'이 76명(41.8%), '도서관'이 72명(39.6%)으로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관공서’라고 응답한 19명(10.4%)은 <표 5>의 기록물의 인식조사에서도 ‘기관이나 조직에서 업무활동으로 생산된 문서’로 답변한 응답자와 일치하여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하여 일관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기록관에 대한 인식도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기록관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연구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	98	53.8
	오래된 사진이나 수집품이 있는 곳	58	31.9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문서를 보관하는 곳	21	11.5
	잘 모르겠다	5	2.7
	합계	182	100
기록관의 유사 이미지	박물관	76	41.8
	도서관	72	39.6
	관공서	19	10.4
	전시관	10	5.5
	잘 모르겠다	5	2.7
	합계	182	100

대학생의 기록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에 기록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대학생의 대부분이 기록관 경험이 없는 점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지에 기록관의 정의 및 역할, 대표적인 기록관으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학기록관, 주제별 기록관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향후 기록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 182명 중 156명(85.7%)으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앞선 <표 1>의 기록관 이용경험 여부의 조사에서 기록관의 이용경험이 없는 149명 중 129명(86.6%)이 간단한 기록물 및 기록관의 안내만으로도 향후 이용의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년별에 따른 기록관 이용의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은데, 1·2학년보다는 3·4학년에서 다소 높은 이용의향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표 2>의 학년별

기록관 이용경험 여부 결과에서도 3·4학년의 고학년 이용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7〉 향후 기록관 이용의향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기록관 이용의향	예	156	85.7
	아니오	26	14.3
	합계	182	100

〈표 8〉 긍정적 이용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학년별 차이

구분	빈도	백분율(%)=빈도/학년별 응답자수
3학년	56	90.3
4학년	52	89.7
석·박사	13	81.3
1학년	16	80.0
2학년	19	73.1

(5) 대학생의 기록관 이용 요구사항

현재 일부 기록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설문 문항으로 개발하여 이용할 의사가 있는 서비스에 중복 응답을 하게 하였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 형태에 대해서는 〈표 9〉와 같이 고른 분포의 이용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이 온라인 전시(68명, 19.5%)보다 견학 프로그램(77명, 22.1%)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인 점이다. 이는 대학생이 기록물을 직접 보고자 하는 ‘참여형 이용자’이며,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대학생의 특징인 온라인 정보 이용행태와 더불어 기록관 서비스의 다른 방법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9〉 기록관 서비스 선호도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기록관 서비스 선호도	건축프로그램	77	22.1
	온라인 전시	68	19.5
	기록물 및 기록관에 관한 교육	62	17.8
	오프라인 전시	50	14.4
	정기간행물	40	11.5
	기록물과 연관된 세미나	37	10.6
	메일링서비스	14	4.0
	합계	348	100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향후 기록관을 이용하게 된다면 기대되는 이용 동기에 대한 설문에는 중복응답을 가능하게 하였다. ‘개인적 흥미에 따른 역사적 주제’에 108명(36.5%), ‘과제물 혹은 전공과의 연구’ 목적에 88명(29.7%)이 응답하여 개인적 관심에 의한 이용 동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의 행사 참여’에는 49명(16.6%), ‘가족사나 지역사의 조사’에는 33명(11.1%)이 응답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대부분이 기록관의 이용경험이 없는 잠재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에 무엇인가 대여 및 기증’을 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답변에도 18명(6.1%)이 응답하였다.

기록관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목록을 알고 싶다’에 59명(32.4%), ‘해당 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설명’에 58명(31.9%)이 응답하여 기록물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었고, 그다음으로 ‘기록관의 이용방법’에 40명(22.0%), ‘기록관의 소개’에 25명(13.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표 3〉의 기록관 비이용 요인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를 모른다’는 응답과 연결되는 부분이며, 각 기록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록관을 이용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는 온라인 선호 집단인 대학생의 특징을 뚜렷이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 검색’이 78명(4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기록관이 위치’하는 것에 42명(23.1%)이 응답하여 여전히 물리적 위치의 문제가 기록관 이용에 있어서 방해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인 J대학교 인근에 기록관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표 9>의 기록관 서비스 선호도 설문에서 ‘견학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한 점과 <표 6>과 같이 기록관의 유사 이미지로 ‘박물관’ 이미지가 도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 집단이 기록물을 대하는 태도는 직접적인 시각 체험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기록물의 목록 및 샘플기록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응답은 여전히 기록물의 목록을 홍보하는 것이 기록관 홍보의 유용한 방법의 하나임을 입증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0〉 기록관 이용 요구사항

문항	설문 항목	빈도	백분율 (%)
향후 기대되는 이용동기	개인적 흥미에 따른 역사 주제	108	36.5
	과제물 제출 혹은 전공과의 연구	88	29.7
	기록관 행사 참여	49	16.6
	가족사나 지역의사 조사	33	11.1
	기록관에 무엇인가 대여 및 기증	18	6.1
	합계	296	100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	기록관이 보유하는 기록물의 목록	59	32.4
	해당 기록관의 기록물 설명	58	31.9
	기록관의 이용방법	40	22.0
	기록관의 소개	25	13.7
	합계	182	100

기록관 이용 시 유용한 방법	온라인 검색	78	42.9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의 기록관	42	23.1
	기록물의 목록 및 샘플기록을 보여주는 것	27	14.8
	학교프로그램을 통한 이용자 교육	18	9.9
	이전 이용자에게서 이용경험 공유	13	7.1
	이용할 의사가 없음	4	2.2
	합계	182	100

(6) 기록관의 효율적 홍보 방법

기록관 홍보에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평소 대학생들의 정보 탐색 및 정보제공 방법의 선호도를 알아보고, 기록관을 홍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방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표 11〉 참조).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정보탐색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이 116명(63.7%)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서를 이용한 탐색’으로 36명(19.8%)이 응답하였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21명(11.5%), ‘전문가에게 문의한다’는 8명(4.4%)으로 온라인을 통한 자주적 탐색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정보제공 방법으로는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58명(31.9%)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소셜미디어(SNS 등)’라고 답한 응답자는 48명(26.4%), ‘개인 이메일’을 통한 정보제공으로는 29명(15.9%)이 답하여 전체 응답 비율의 74.2%가 온라인 환경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 홍보책자’의 응답자는 28명(15.4%)으로 오프라인 정보제공 방법으로 전화나 직접적인 면담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기록관을 홍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포털 통합 검색’ 및 ‘미디어를 통한 광고’에 대해 127명(39.7%)이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기록관의 다양한 문화 행사’에 47명(14.7%),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안

내'에 46명(14.4%), '전시 및 견학 프로그램'에 40명(12.5%)이 응답하여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용교육 활성화'에 24명(7.5%), '학술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 방법'에는 21명(6.6%)이 답하여 두 방법 모두 10%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록물 편찬 사업'에는 10명(3.1%)만 응답하여 기록관 홍보방법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정보검색 방법 선호도

문항	설문항목	빈도	백분율(%)
정보검색 방법의 선호도	인터넷으로 탐색해 본다	116	63.7
	도서를 이용한 탐색	36	19.8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21	11.5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8	4.4
	기타	1	0.5
	합계	182	100
정보제공 방법의 선호도	웹 사이트의 게시판	58	31.9
	소셜미디어(SNS 등)	48	26.4
	개인 이메일	29	15.9
	인쇄 홍보책자	28	15.4
	정보제공자와의 직접적 면담	13	7.1
	전화	4	2.2
	온라인채팅	2	1.1
	합계	182	100
기록관 홍보에 효과적인 방법	포털을 통한 통합 검색	67	20.9
	미디어를 통한 광고	60	18.8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47	14.7
	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46	14.4
	전시 및 견학프로그램	40	12.5
	이용 교육 활성화	24	7.5
	학술 행사 개최	21	6.6
	기록물 편찬 사업	10	3.1
	기타	5	1.5
		합계	320

3)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 인식 특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기록관의 잠재 이용자 범주로 규정하여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생 집단의 특징을 도출하여 이들을 적극적인 이용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있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기록관과 기록물에 대한 이용 의지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생의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기록관 이용경험의 설문조사 결과인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관을 이용해 보았거나, '이용해 보지는 않았어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기록관의 단순한 인지 여부는 34%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어떤 기록관을 들어보았는지의 개방형 문항에는 답변을 회피하여 전반적으로 기록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록물과 기록관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나 기록물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표 3>의 기록물 및 기록관의 비이용 요인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 집단은 기록물과 기록관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으나 전체 응답자의 85.2%가 기록물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역사적인 보존 가치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이는 기록물이 역사적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미래의 정보이용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향후 기록관을 이용하더라도 '과제물 제출 혹은 전공과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생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을 경우 기록관 이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록관과 기록물의 연관성 개념이 미미하다. 기록물 인식조사에

서는 <표 5>에서와 같이 ‘오래된 문서, 사진, 지도, 일기, 뉴스 등’의 답변 항목에 63.7%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기록관 인식조사 결과로 ‘오래된 수집품이 있는 곳’이나 ‘사용하지 않는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라는 답변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표 6>에서와 같이 ‘연구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항목에 53.8%가 응답하여 기록관에 대한 공간 인식은 역사적 기록물의 보관 장소라기보다는 ‘도서관’과 같은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MORI의 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MORI의 결과에서는 기록물에 대한 인식으로는 ‘오래된 문서, 사진, 지도’로, 기록관의 인식으로는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록물에 대해서는 역사적 가치에, 기록관에 대해서는 정보이용 가치에 좀 더 가까운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록관의 이용경험이 없으므로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록관에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에 대한 연관성 개념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대부분은 기록관의 공간적 개념을 박물관 및 도서관과 유사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기록물의 인식은 문서로 인지하고 있어 수집형태의 박물관과는 구별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기록물 인식의 특이한 점으로는 기록물 가치 인식도에서는 ‘역사적 보존가치’를 ‘정보이용가치’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나, 기록관의 인식도에서는 ‘정보이용 가치’와 연관되는 ‘연구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록물과 기록관의 인식에 있어서 일관성이 낮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넷째, 기록물 및 기록관 이용에 긍정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이용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설문결과에서도 대학생은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이용의지를 명확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대학생 집단의 보편적 정보탐색 방법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이용 행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학프로그램 및 기록물과 연관된 세미나, 오프라

인 전시 등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록관 이용 활성화 방안

1) 고려사항

대학생의 기록물과 기록관의 인식을 정리해 보면 응답자의 81.9%가 기록관의 이용경험이 없으며, 기록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와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기록관에 대한 홍보를 접해 본 적이 없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대학생 집단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록관과의 접점을 이어줄 수 있는 아웃리치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참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정보검색 이용 행태는 인터넷 검색 등 온라인 기반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기록관의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전시 및 견학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표 11〉 참조). 참여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반과 오프라인 기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록관 이용경험이 있는 대학생 집단은 〈표 1〉에서와 같이 특별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잠재 이용자의 관점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기록관과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프라인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관으로의 접근성이 도서관이나 박물관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를 상쇄시킬 만한 유익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활동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향후 기록관 이용시 기대되는 이용동기를 묻는 설문 결과에서도 '과제물 제출 혹은 전공과의 연구'에 29.7%가 답변하였다(〈표 10〉 참조). 이는 대학생에게 기록관을 인지시키고 기록물을 활용하여 산출해 낼 수 있는 연구 활동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의 이용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기록관의 역할, 연혁, 구성 및 담당자의 업무보다는 기록물의 주제별 소개, 소장 기록물 목록의 안내, 과제·연구·학습의 활용 방법 등에 초점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집단의 특징이 온라인 매체를 더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기록관의 이용자 교육은 대부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원채원 2015). 하지만 기록물 활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더라도 대학생이 기록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일은 도서관의 이용처럼 쉽지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대학기록관과 도서관이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옥선(2007)은 도서관에 위치한 대학기록관이 타 대학에 비하여 기록물 이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면서 대학기록관에 대해 알게 되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며 대학기록관에 대한 간접적 홍보가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대학기록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이용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기록물의 활용 방법 및 기록을 기반으로 한 연구 활동의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기록물 이용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포털을 이용한 정보탐색 경로에 기록물 및 기록관의 노출이 필요하다. 대학생은 기록관의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포털을 통한 통합검색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록물 이용에 전문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기록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대학생의 경우 반복적으로 기록물을 사용하지 않고, 기록물의 속성이 주제별 기록관에 분산되는 속성으로 인하여 원하는 정보만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2006). 그러므로 기록물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정보

검색이 자주 이루어지는 기관 및 주요 포털과의 통합 검색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필요하다(조윤희 2008).

넷째, 기록관의 홍보 및 정보의 제공방법에 소셜미디어가 활용되어야 한다. 정보제공 방법의 선호도를 보면 대학생 집단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 방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웹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이 일방적 방향의 수동적 서비스라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공유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 집단이 ‘참여형 이용자’임을 고려하였을 때,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자발적 정보의 생산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록관을 홍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윤철(2013)은 SNS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이용자와 관계를 맺은 또 다른 이용자와 SNS를 통하여 확산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기록관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잠재 이용자들에게도 기록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2) 분야별 이용 활성화 방안

(1) 이용자 교육

① 인지도 차이에 따른 이용자 교육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록관의 인지도 수준에 따른 이용자 교육 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록관의 이용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간단한 기록관의 정의 및 역할, 기록관 설립목적의 안내를 통하여 향후 기록관을 이용하겠다는 이용의향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록관을 연구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거나, 과제물 제출이나 전공과목의 연구를 위한 이용동기를 가지는 등 대학생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을 적극적 이용자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록물 활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및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는 차별화된 대학생 집단의 이용 요구를 반영한 교육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기록관 이용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기록관 이용경험이 없지만 향후 이용 의향을 지닌 대학생을 학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1·2학년 대학생 집단 보다는 3·4학년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 이용경험과 이용의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양과목이 많은 저학년보다는 전공과목이 편입되기 시작하는 고학년일수록 전공 수업의 과제를 위한 자료 수집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영준과 최성은(2011)의 대학도서관 이용현황의 설문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고학년의 도서관 자료 탐색이 저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대학생 집단의 자료수집 수준은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부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학과 수준 및 학년별에 따라 세분되어있기도 하는데, 1·2학년의 경우 도서관 행사 또는 자료검색, 이용 등의 흥미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3·4학년은 졸업 논문 작성을 돕기 위한 논문검색, 원문을 볼 수 있는 방법, 상호대차방식 등을 교육하고 있다(이란주, 장은비 2012). 또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용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소개 교육인 오리엔테이션과 도서관의 활용을 돕는 특강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보검색 수업은 2학점을 부여하는 강의로 한 학기에 12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 교육은 대학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이용능력을 향상하기도 하지만, 이차적으로는 도서관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김명희 2010). 따라서 기록관도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형식을 갖춘 기록관의 소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대학 내에 기록관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기록관이 주체가 되어 기록관의 소개 및 기록물 이용방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기록관이 없는 대학의 경우에는 기록관리학 대

학원 및 기록관련 연계학과인 문헌정보학 및 사학과가 주체가 되어 특강 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국가기록원 등에서 오리엔테이션용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가 온라인 수강을 장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으로는 대학 기록관의 경우, 당 기록관의 이용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주제 기록관의 소개, 정보공개 및 열람, 알권리, 정보제공과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각 기록관이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록관의 이용경험과 인지도가 낮은 대학생들이 그 이용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관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기록물 활용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록관의 이용경험이 있는 대학생 집단일 경우에는 좀 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생 집단은 기록관에서 연구 및 과제를 위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기록관에 있는 기록물은 본인과 상관이 없으므로 인지하였다. 이는 기록관에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채원(2015)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기록관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학기록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의 72%가 세미나 강의 및 과제, 리포트 등 참고 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록의 이용에 비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기록물을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 기록물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록관을 인지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는 소장기록물에 대한 목록이 공개되어 기록물의 이용에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여야 하고, 기록이 원자료로 활용된 예시 등을 통하여 더욱 쉽게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경우 과제물에 기록의 1차 사료 또는 특정 기록컬렉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활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표 12>와 같다.

〈표 12〉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이용자 교육 서비스

지원서비스	내용
강의 가이드 (Course Guides)	웹사이트를 통한 자료와 도구의 안내 기록관을 통한 특정 강의, 과제에 대한 지원
과제상담 (Assignment consultations)	강의 또는 과제가 있는 학생에게 1차 사료 활용법 교육
연구오리엔테이션 (Research Orientations)	기록관이 특정한 자료와 강의에 적합한 자료를 검색하여 특정과정에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
기록정보요약 (Resource Round-up)	과제를 위한 특정 컬렉션 및 선별된 기록 제공

*출처: 원채원(2015) 재구성

② 기록물을 활용한 강의

교수는 대학의 기능 중에서 주요한 기능인 교육 기능과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집단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강혜영 1999). 앞에서 언급하였던 이용자 교육은 대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보다 교수에 의하여 기록물이 1차 자료로 강의에 활용되거나 기록물 활용을 전제로 한 과제의 제출이 요구될 경우에는 교수가 기록물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전공계열이 기록관의 활용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1·2학년의 대학생의 경우 교양과목이 많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기록의 활용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계명대학교에서는 2013년에 교양과목을 총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철학과 역사, 사회와 문화,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글로벌리더십, 자기계발부분이었다(이은숙 2014). 이중 특히, 역사와 사회, 문화 부분의 과목에서는 기록물을 원자료로 이용하는 강의가 가능해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교수의 기록물 활용 인식도에 의존하게 된다. 일찍이 도서관 분야에서는 대학교수를 학생들에게 서지 교육을 전달하는 조정자로 인식하고 교수들의 도서관 관심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강혜영 1999). 이점에 비추어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교수들의 기록관 인지도 및 기록물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대학생 집단이 기록관을 인지하는 점점 측면에서 교수의 기록물 활용 인식은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 이용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 프로그램 개발

① 콘텐츠 및 참여프로그램 개발

대학생 집단을 고려한 특화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기록관은 기록을 더욱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용자를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콘텐츠와 이용자 확장 서비스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포괄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역사와 관련된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 집단은 일반인과는 다른 주제 요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록관에서 과제물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자료를 탐색하고자 하는 이용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지현(2013)과 김태영 등(2014)은 기록관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중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전공과목 연구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및 주제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예술자료원이 운영하는 한국 예술디지털 아카이브(Korea Digital Archives for the Arts)인 DA-Arts는 체계적으로 구성된 자료들을 예술 관련 전공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기록물에 검색 활용하기를 유도하여야 한다. 공학 및 자연과학 대학생들에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연구하는 분야의 정책기초자료, 예측조사 보고서, 연구성과, 공개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쉽게 접하게 함으

로써 연구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대표적 주제 기록관 중의 하나인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경우에는 5·18항쟁 관련 사진이나 필름 및 영상물들의 소장 기록물이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과제물 제출이나 연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게시함으로써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대학생 집단의 기록물 비이용 요인이 본인과 기록물과의 관계를 무관심으로 분리시키는 태도는 대학생 집단의 흥미를 유인할만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부족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이 일상에 항상 함께하는 인식은 심어줄 수 있고, 대학생들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 강연회, 영화상영, 문학탐방,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강좌 형식의 전문가 초빙 강연이 대학 내에서도 진행된 적은 없다. 기록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기록관의 견학 및 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기록을 통하여 역사를 재조명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록관의 적극적인 기록확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② 온·오프라인 전시의 활성화

기록물의 전시는 실제 기록관을 방문하여 기록물을 열람해 본 경험이 없는 다수의 일반인에게 기록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기록관의 업무를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기록관의 존재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김재훈, 이경훈 2006). 대학생 집단의 경우 기록물의 샘플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는 기록관과 기록물의 연관 개념이 미미한 잠재 이용자의 경우 어떤 기록

물이 있는지를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설문결과에서도 대학생 집단은 기록관의 온·오프라인 전시를 가장 선호하는 기록정보서비스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기록관을 이용하는 유용성 부분에서는 온라인 검색과 기록관의 근접성에 우선을 줌으로써 기록관의 물리적인 위치가 기록관의 전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접근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록의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자 2011년과 2013년에 ‘기록사랑 이야기’와 ‘정전 60주년 기념’을 주제로 한 순회 전시회를 실시하였는데 2013년의 전시 관람객의 수는 43,011명이었다(국가기록백서 2013). 순회전시가 이루어진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 근처와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되었는데, 대학생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일은 기록관을 직접 방문하는 일 만큼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로 예측되어 진다. 교육부 통계로 전국의 대학생이 327만 명(2015년 기준)으로 추산될 때 순회전시의 장소 및 횟수의 보완, 정기적인 전시 개최 등이 바람직해 보인다. 대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 및 대학박물관이 대학생에게 기록관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전시와 동반된 전문가의 강연 및 워크숍 등 학술행사와의 연계는 순회전시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관 수 및 인력 부족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 전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D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을 이용하여 기록관의 공간 및 기록물의 샘플을 보여주는 방법은 기록관의 물리적 접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에서 소개된 기록물은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기록의 정보수집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기록의 활용을 도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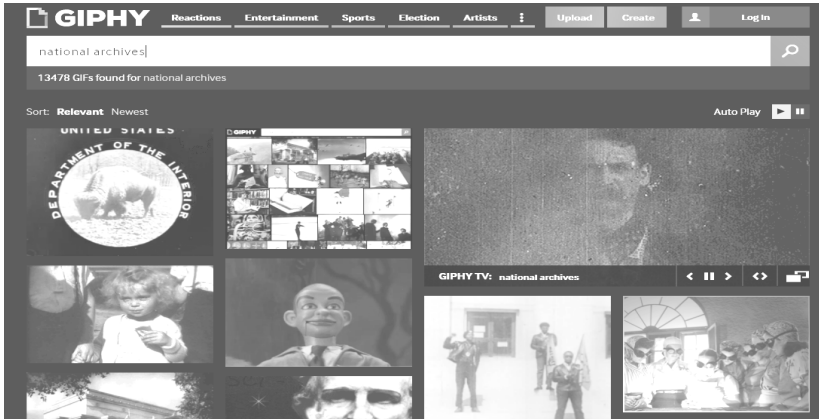
③ 효과적 홍보 활동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집단이 선호하는 정보제공 방법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홍보 활동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관의 비이용 요인을 보면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이었다. 이는 국가기록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록문화 확산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집단에게는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집단의 일반적인 정보검색 행태는 인터넷을 통한 탐색이 압도적이었는데, 정보제공의 선호도 역시 웹사이트의 게시판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방법이었다. 또한, 기록관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포털을 통한 통합검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포털 검색은 기록관의 직접적인 검색과 기록물 관련 주제어 입력에 의한 간접적인 검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잠재적 이용자 성격이 강한 대학생의 경우 직접적인 기록관의 검색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네이버' 혹은 '다음'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자료의 검색어를 입력했을 경우 기록관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기록관 홈페이지 방문이 유도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자주 검색되는 기록물 연관 주제어와 관련하여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in'을 통하여 기록관이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현 국내 기록관의 인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기록관의 홍보 의지와 기록연구사의 노력으로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영국 TNA의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전시에 사용된 기록의 이미지를 전자 엽서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전수진 2008) 웹사이트의 방문이 대학생 집단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오락성을 갖는 방법도 있다. 또한, 포털 검색으로 제공되는 기록관의 보도 자료는 기록관을 홍보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디오나 신문, TV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흥

보방식은 보다 광범위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실제로 국가기록원은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 국보문화재 전국 일주’(15.4.5. 방영)의 방영 후, 방문객을 통하여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체감한다고 했다(국가기록백서 2015).

이용자 참여를 이끌어 기록관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셜미디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대학생 집단은 이미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과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다. 활발한 정보의 교류는 정보의 확장을 가져오는데, 이는 대중매체를 통한 마케팅 기법보다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채널로 도달하기 어려운 잠재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해외 다수의 기록관에서는 이미 기록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경우 트위터(Twitter), 블로그(Blog), 페이스북(Facebook), 플리커(Flicker), 유튜브(Youtube) 등의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 위주로 게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다(강주연 외 2016). 특히 이용자의 최신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2016년 10월부터는 GIF 이미지를 공유하는 기피(giphy.com)에 전용 채널을 열고 156개의 영상물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영상 중에는 1970년 미 백악관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만나는 장면, 1965년 6월 3일의 NASA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 2세가 우주에서 유명하고 있는 영상물, 1964년 2월 7일 영국의 밴드인 비틀즈의 첫 미국 방문 등 다소 기록에 무관심한 일반인에게 기록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영상들이 공개되어 있다. 짧은 동영상 시청으로 궁금증이 유발된 이용자는 한 번의 클릭(Click)만으로 NARA의 웹 페이지로 연결되어 원문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림 1〉 NARA ‘기피(giphy.com)’ 화면예시



(3) 이용자 세분화 및 협업 프로그램

① 이용자 세분화

기록관은 대학생 집단이 향후 적극적 이용자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생 집단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일에 역사적 가치와 미래의 정보 이용 가치를 부여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기록관을 인지하지 못했던 설문 응답자들도 간단한 기록관의 소개와 목적, 취지가 제공되었을 때 향후 기록관을 이용하겠다는 높은 이용의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을 기록관으로 유인하여 기록관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기록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록관의 견학프로그램 경우,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잠재 이용자에게 기록관을 소개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이혜원, 이해영 2015).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대학생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기록관 서비스로 ‘견학프로그램’에 응답하여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록관에서는 이용자를 세분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이용자를 세분화하더라도 대학생 집단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국가기록원의 견학프로그램 경우, 기본코스(초등학생 대상), 실무코스(중·고등학생, 일반인 대상), 전문가 코스(기록관리전문가, 기록관리담당자, 전공과 대학생 등)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차이점이 없으며, 얼마나 더 많은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지에 따른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기록문화 확산프로그램인 ‘기록문화체험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기록문화 시민강좌’ 등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를 초빙한 기록에 대한 강연, 기록과 연관된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 등이 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등 대학생을 이용자의 한 범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 집단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기록물을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이용자 군이기 때문이다.

② 전문가 배치

대학생 집단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시 및 견학, 교육, 홍보를 담당하는 전문적 담당자 배치가 필요하다. 견학과 전시, 이용자 교육은 기획과 진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이며, 많은 시간과 장기적인 운영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담당자를 위한 전문적인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홍보 담당의 인력 역시 충원되어 적극적인 기록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관에서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으로 관련 정책의 부재 및 재정 부족, 인력 부족 등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이혜원 2007). 국가기록원의 경우도 기록물 담당자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분적 업무로 전시운영

과 홍보를 하고 있다. 반면 미국 대통령 기록관의 인력 구성의 경우는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인력과 견학과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 기록관의 행정 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③ 지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관은 이용자를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협소한 기록관의 전시공간과 교육공간의 부족, 물적 지원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는 타 기록관이나 유관기관인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소장 기록물이 빈약하여 단독으로 전시를 기획하거나 대중을 상대로 한 세미나 개최 및 기록활용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기록관 홍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희정 등(2014)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과 부산 시민도서관이 협업한 시민강좌와 체험, 학습 프로그램의 공동운영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서로 다르더라도 서비스 측면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공통의 서비스 업무인 교육분야에 대해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하여 상호적으로 연계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Northern Michigan 대학기록관은 외부의 소규모 역사단체와 박물관을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역사단체의 기록물 담당자, 박물관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기초 내용을 주제로 기본적인 기록관리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워크숍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유관기관에 기록관리를 홍보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또한, 상호 간의 정보 교환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이끌어 가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관이 이용되기 위하여 이용자, 특히 잠재 이용자인 대학생 집단의 인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집단에게 기록물의 활용을 독려하고, 기록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집단의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대학생 집단이 가지는 인식의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집단의 특징을 반영한 기록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 이용자인 대학생 집단을 기록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세분화를 통하여 적절한 홍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적극적 잠재 이용자임을 고려하여 웹사이트의 검색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해야 하며,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기록관은 대학생을 향후 장기적인 기록관의 이용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기록물 활용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과제수행 및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록활용 교육안을 개발하고, 대학생의 기록관 방문을 기다리기 전에 각 대학의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문 기록연구사가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생을 포함한 잠재 이용자가 기록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순회전시의 정기화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강좌를 확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지방기록관 및 대학기록관의 법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현시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학생 집단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기록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 및 견학 프로그램의 홍보는 인터넷에서 효과적으로 검색되도록 하여야 하며,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콘텐츠의 주제는 기록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에게 기록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기록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잠재 이용자의 세분화에 따른 주제 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개발된 주제는 전시 및 강연, 콘텐츠의 개발을 통하여 소개되어야 하고, 물리적 접근성에 제약을 받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전라북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국내의 모든 대학생 집단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전라북도에 위치한 기록관이 없어서 물리적 이용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세분화 측면에서 대학생을 범주화하여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였고,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로 다양한 잠재 이용자들의 비이용 요인 분석 및 이에 대한 기록관 이용의 요구사항 분석, 구체적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연, 김태영, 최정원, 오효정. 2016. 국내외 국립기록관의 트위터 운용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33(3), 263-285.
- 강혜영. 1999. 교수들의 도서관 이용과 서지교육 인식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4), 59-86.
- 국가기록원. 2013. 『2013 국가기록백서』.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5. 『2015 국가기록백서』. 대전: 국가기록원.

- 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2013.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9.
- 김명희. 2010. 『대학도서관 홍보프로그램이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옥선. 2007. 『대학기록관의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 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은실. 2008. 『이용자 유형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사료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정보기술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재훈, 이경훈. 2006.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역사기록전시-기록으로 보는 한국불교와 조계종. 『기록학연구』 (13), 287-320.
- 김지현. 2013.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01-225.
- 김태영, 김건, 심갑용, 김용. 2014.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83-115.
- 김하야나, 김기영. 2014.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이용자, 이용 중단자, 비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3), 201-226.
- 남영준, 최성은. 2011.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287-310.
-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65-92.
- 오선경, 이지연. 2011. 시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141-162.
- 윤 철. 2013.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 한신대학교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윤희윤. 2012.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3-75.
- 이란주, 장은비. 2012. 대학생의 전자저널 이용 활성화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187-207.
- 이은숙. 2014. 글로벌 시대 교양강좌개발 방향 모색-계명대학교 균형교양과목(서양문학으로 소통하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8(6), 727-754.
- 이혜영, 김영은, 김은영, 김현지, 남경희, 이미라. 2007.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25-42.
- 이혜영. 2012.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3), 178-200.

- 이혜원. 2007. 『기록관 전시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 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이해영. 2015. 기록관의 견학프로그램.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19-245.
- 원채원. 2015. 『대학 기록관의 이용자 교육 서비스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한성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덕현, 강은영. 2012. 부산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인문학논총』, 30, 201-223.
- 전수진. 2008.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127-152.
- 정경희. 2007. 고등학교 역사교사의 기록물 이용행태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377-396.
- 조윤희. 2008. 『기록물관리기관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기록 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한희정, 육혜인, 오유진, 김용. 2014. 문화유산기관의 협업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31-60.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 Madden, M. 1979. Marketing survey spinoff: Library user/nonuser lifestyle. *American Libraries*, 10(2), 78-81.
- Market &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2003. Listening to the Past, Speaking to the Future Annex D : Non-Archives Users Survey : Omnibus Study.
- Xiaomu Zhou. 2008. Student archival research activity : an exploratory study. *The American Archivist*, 71(2), 476-498.

〈참고 사이트〉

- GIPHY. 2013. national archives of Giphy. Retrieved 2016.11.17. <http://giphy.com/search/national-archives>
- San Diego State University. 2016. SDSU Library & Information Access. Retrieved 2016.11.3. <http://library.sdsu.edu/guides/sub2.php?id=336&pg=355>

